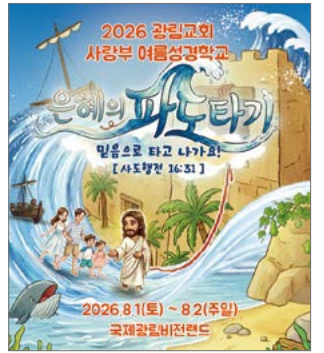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처소를 지은 아이들

2026년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하나님을 만나요'를 은혜 가운데 마치며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변함없는 중보기도와 물질의 후원,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에 힘입어 2026년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하나님을 만나요'가 축복 속에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향연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거룩한 은혜의 단비로 내렸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기획하며 교육부서 전체는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거룩한 자리'(성막)가 존재함을 깨닫게 하고, 그 자리를 구별하여 지키는 영성을 심어주고자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부서의 사역 현장 속에서 기도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열매와 변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미취학부(영아, 유아, 유치)는 어린 심령의 눈

높이에 맞춰 성막과 언약케 모형, 오감 체험 활동을 접목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신학적 주제를 직관적이고 즐겁게 체득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정결한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성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와 가정에서도 언제나 만날 수 있음을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취학부(유년, 초등, 소년)는 입체적인 축소형 성막 체험과 역동적인 말씀 코스 활동, 개인의 달란트를 나누는 결단 프로그램을 연계했습니다. 아이들은 구원의 은혜와 예배의 가치를 인격적으로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깊이 배우고 결단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은혜는 예배당 문턱을 넘어 각 가정으로 흘러갔습니다. 부모님들이 전해 주신 피드백은 다음 세대 교육에 왜 온 힘을 다해 투자하고 후원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 주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어려운 성막 내

용이라 걱정했는데, 아이가 집에 와서 성막 투어 이야기와 받은 감동을 신나게 이야기 하네요. 기도와 말씀 중 눈물을 흘렸다는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라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바쁜 일상으로 지쳐있던 아이가 유익한 프로그램과 집회를 통해 정서적 회복을 얻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가정 예배 회복과 일상 속 신실한 신앙생활로 이

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심령 속에 거룩한 영적 보좌를 설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학교의 성공적 마무리는 교역자나 교사만의 노력이 아닌,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기 위해 마음을 보태주신 성도님들, 밤마다 눈물로 중보해 주신 기도의 파수꾼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신앙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광야로 돌아간 아이들이 성막에서 만난 하나님을 평생 떠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달란트를 발휘하며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자라나려면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영적 주관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삶 속에 은혜의 성막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범규 목사(교회학교)

거룩함 앞에 섰을 때 드러져야 할 고백

“...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다 하였더라”(사 6:5)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 ...”(1절). 이스라엘 왕 웃시야는 유다 왕국의 10대 왕으로 16세에 등극하여 무려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대로 다스렸던 웃시야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유다는 풍요로웠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게 함으로 웃시야는 백성들 사이에 신화적인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웃시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문둥병을 얻게 됩니다. 왕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다 백성들, 마음 속으로는 병에서 나아 다시금 유다를 다스리기를 바랐지만 웃시야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웃시야가 세상을 떠나자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큰 실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웃시야가 죽은 유다는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사야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게 되어 그는 성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성전에 엎드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녕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웃시야 왕은 의지할 존재요, 믿고 신뢰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의 삶을 인도해 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웃시야 왕이 죽자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미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깊은 절망에 빠진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2~3절).

깊은 절망감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엎드릴 때,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웃시야를 붙들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의 눈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는 웃시야의 죽음으로 인하여 가려졌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그토록 기대하며 의지하였던 것들, 이것들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이사야 6:1~5

1.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니 5.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다 하였더라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질 것 같은 순간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 전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비치게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거룩함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거기서부터 삶의 거룩함이 시작되며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스랍(천사)들의 찬양 소리 앞에 선 이사야,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의롭게 살며 바르게 살 뿐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인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발견하게 됩니다(5절). 이러한 때, 하나님은 스랍 하나를 보내어 숯불의 숯으로 이사야의 입을 대게 하신 것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 깨끗하게 되어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정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되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삶에는 두 가지의 것이 전제가 됩니다. 하나는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의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기에 소망과 기대함이 삶에 넘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섰는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광림교회의 뜨거운 영성을 체험했습니다”

UMC 오하이오연회, 브라질감리교회 목회자들 광림교회 방문 소감



지난 호렙산 기도회 기간 중 미국 오하이오 연회 목회자 40명과 브라질감리교회 감리사와 지도자 8명이 광림교회를 방문했다. 목회자들은 주일예배와 호렙산 기도회에 참석해 광림교회의 뜨거운 영성을 체험했고 선교구동형 심방, 광림교회 소개와 투어, 세미나 하우스 등 교회의 다양한 시설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회자들은 광림교회에서 보고, 배우고, 체험한 소감을 전해왔다.

UMC 오하이오연회 (2026. 6. 22 ~ 7. 2)

1. 주일예배

예배가 예전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탁월하며, 은혜롭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감독회장님의 설교는 명확했으며, 성도들의 헌신과 예배 공동체의 분위기에 감동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호렙산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는 강력한 영감을 주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감독회장님이 새로운 설교를 한다는 것에 놀랐고, 공동체적 기도에서 성령의 역사를 느꼈으며, 40일 동안 이른 새벽 모이는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연결을 더 깊게 해주었다고 느꼈습니다.

3. 교회 소개 및 투어

역사박물관, 갤러리, 기록 보존을 통해 선교유산과 감리교회와 광림교회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광림교회의 역사, 사명, 비전, 현재 사역의 연결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4. 목회 심방, 목양

가정 방문과 속회 모임, 소그룹 방문은 이번 한국 방문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한국 가정을 직접 방문한 이번 심방은 실제 기독교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어 제 목회에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어떻게 돌보는지, 목회자의 돌봄과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5. 세미나 하우스 및 시설

세미나 하우스와 시설은 전반적으로 훌륭하고 편안했으며 조용한 쉼, 아름다운 환경, 친절한 직원, 좋은 숙소에 대해 만족했습니다.

브라질감리교회 (2026. 6. 22 ~ 29)

Rosangela 감리사

광림교회에서 드린 예배는 제 삶에 여러 면에서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감독회장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 주었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경외심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는 제게 매우 깊은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나라와 교회를 위한 뜨거운 중보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Robert 목사

교회 소개와 시설 탐방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일상 속에서 어떤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사역하는지 잘 알 수 있었고, 특히 제자 훈련이 교회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절과 섬김의 자세로 저희를 세심하게 도와주었으며, 모든 사역자들 역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Wesley 목사

호렙산 기도회는 정말 놀랍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깊이 만져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느껴졌으며, 이 교회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쌓아온 기도의 열매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회뿐만 아니라 예배와 찬양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큰 영감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문화와 사역의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Raquel Lima 목사

정말 놀랍고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의 순서와 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태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기도와 감사로 봉헌하시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경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는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마치 땅이 흔들리는 듯한 강력한 영적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마음속에 가득해졌으며,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Tiago 목사

광림교회 주일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전해진 말씀은 매우 명확하면서도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호렙산 기도회는 매우 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헌신과 경외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우 강하게 경험할 수 있었으며, 제게 오래도록 기억될 뜻깊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Crisitna Silveira 목사

모든 방문 일정은 매우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교회의 역사와 비전에 대한 설명도 단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이해하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특히 광림교회의 동일한 열정과 비전이 지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재건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광림교회 성도들에게서 존중과 문화,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는 관대함의 정신을 보며 저에게 맡겨진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광림 뉴스레터

포토 뉴스



청년선교국 국내교육선교
‘하나님을 만나요’라는 주제로 7월 24일 ~ 8월 8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중고등부 여름성경학교
7월 24일 ~ 26일까지
비전랜드에서 진행 중이다.



교리교육(Step 1 Knowing Jesus)
새가족을 대상으로 7월 12일 ~ 8월 2일까지 매주 4주간
기독교 기본 교리교육이 진행된다.



여선교회 계삭회
7월 23일 여선교회 강남지방 연합회
2026년 3차 계삭회가 광림교회
여선교회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렸다.

감독회장 동정



7/22 신임 국무총리 면담
수요치유의 신학
7/23 교계 지도자 모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사랑부

‘사단법인 광림’ 제4회 오티즘엑스포 참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광림교회의 선한 사역 알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발달장애인 복지에 앞장서 온 광림교회 소속 '사단법인 광림'이 지난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제4회 오티즘엑스포'(AUTISM EXPO)에 참가했습니다. 이번에 사단법인 광림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광림교회의 선한 사

역을 알리고 다른 기관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꿈을 그리다, 함께 그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오티즘엑스포는 자폐성 장애 및 발달지연에 관한 정책, 복지, 교육, 치료, 고용, 문화 예술 등 전 생애주기별 필수 정보를 한자리에

서 모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발달장애 전문 박람회입니다. 올해 행사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을 비롯해 복지·교육기관, 사회적 기업 등 총 97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148개 부스를 운영했으며, 이틀간 관람객 2만 3천여 명이 찾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뜻깊은 교류의 장에 참가한 사단법인 광림은 전용 부스를 마련하고, 그동안 광림교회가 기도로 일궈온 다양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역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사단법인 광림의 부스에는 수많은 관람객과 전문가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과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비전을 나누었고, 기관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향후 협력 가

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성도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실천해 온 사랑의 사역들이 세상 밖으로 흘러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엑스포 참가는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온 광림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단법인 광림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전하는 선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형진 장로(사단법인광림 이사)

사회사업위원회

‘사랑의 동전 모으기’로 어려운 이웃 돕는다



사회사업위원회(위원장 장재관 장로)는 2024년에 이어 금년에도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교인들에게 저금통을 배부했다. 이 저금통은 11월에 수거할 예정이다.

대부분 동전을 책상 서랍 속이나 저금통에 넣어 두고 잘 사용하지 않는데, 한국은행에서는 필요한 만큼 동전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동전 액면가 보다 제작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을 감안할 때 사용 안하는 동전을 모아 은행에 가져가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모금하게 되는 금액은 슈박스 등 교회 청년선교국을 통한 사회사업에 쓰여질 예정이며, 외국동전은 따로 취합하여 지난 행

사 때와 같이 아펜젤러 선교센터 등 사회단체에 후원할 예정이다.

사회사업위원회에서는 지난해까지 격월에 실시하던 '어르신 새벽 섬김 봉사활동'을 금년 들어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인원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50명 가량 증가한 300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매번 찾아온다. 새벽에 하는 행사지만 청장년부 회원들이 자원하여 봉사활동을 도와주고 있으며, 어르신에게 나눠주는 빵, 사탕, 두유 등은 품목별로 각각의 후원자가 전담해서 매달 제공하고 있다.

장재관 장로는 "동전 모으기 행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사업이기도 하지만 동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동참하여 어려운 처지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현재 새벽에 어르신 섬김행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린 자녀들과 더불어 가족이 함께 봉사하는 자리도 가지려고 합니다. 항상 참여해 주시고 뒤에서 많없이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득섭 기자



기도가 능력 되는 24교구 남성 속회

매주 목요일 저녁, 24교구 남성 속회원들의 발걸음은 어김없이 한 곳을 향합니다. 지난 2007년 세워진 24교구 남성 속회는 20년이 지났지만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제가 처음 남성 속회에 참여했을 때는 장사도 장로님의 열정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남성 속회가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김진섭 장로님과 함께 속회를 드리면서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라오스 교회 개척이라는 큰 영적 결실을 맺으며, 모두가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현재는 이창우 장로님의 따뜻하고 영성 있는 인도 아래, 매주 목요일 오후 8시가 되면 역삼동, 선한목자병원 건물 3층 사무실에 불이 켜집니다. 공휴일이나 명절 연휴가 겹치지 않는 한, 이곳에서는 매주 거르지 않고 나라와 가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남성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소리와 찬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임이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습니다. 매주 자신의 일터이자 헌신의 공간을 속회 장소로 아낌없이 제공해 주는 이창우 장로님은 속회원들의 지친 영혼을 돌보는 영적, 정신적 멘토로서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속회원들은 한 해 동안 품고 나아갈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매주 속회가 시작될 때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겪었던 기쁨과 슬픔, 영적 치열함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삶의 고백을 통해 공과와 문을 활짝 열어갑니다.

24교구 남성 속회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별한 축복은 바로 '다양성 속의 조화'에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각자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유익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서로 조

언을 구하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모임은 단순한 예배 공동체를 넘어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 모임으로 성숙해 왔습니다. 이처럼 참다운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삶의 지혜까지 덩어로 얻어가는 남성 속회가 앞으로 주님 안에서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성 속회는 이창우 장로님을 중심으로 김일국, 하태완, 이창환, 최원석 권사, 그리고 이도원, 최준훈, 박정호, 원치현 집사와 이

강현 성도 등이 모여 뜨거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24교구 남성 속회의 문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의 교제를 원하는 모든 남성 성도들에게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발걸음을 환영하며, 매주 목요일 밤마다 모이는 이 은혜의 자리가 주님이 보내주시길 새로운 속회원들로 가득 차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최원석 권사(24교구)



청년부

해외단기선교, 현지 교회와의 만남을 준비하다

베트남 선교 8월 17일 ~ 25일, 몽골 선교 8월 22일 ~ 29일

광림교회 청년부는 에베소서 2장 21~22절 말씀을 품고, 오는 8월 베트남과 몽골에서 진행되는 해외선교를 앞두고 현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베트남팀은 11명의 인원과 함께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 광림미션센터와 인근 지역에서 사역하며, 몽골팀은 12명의 인원과 함께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어잉게렐교회와 날라이흐교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베트남 팀은 어린이 성경학교와 일일클래스, 전교인 체육대회와 지역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어린이 성경학교에서는 말씀을 기반으로 한 공과와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천지창조와 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무언극에 담아 전하게 된다.

또한 심폐소생술 체험, 인공지능 모델링, 파우치와 키링 만들기, 요리 활동 등 청년들의 전공과 은사를 활용한 일일 클래스를 통해 현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신에게 주어진 талан트를 발견하도록 돕는 사역을 기획 중이다.

회 중이다.

몽골 팀은 어린이 성경학교와 K-페스티벌, 청소년·청년 아카데미, 가정 방문과 거리 전도를 준비하고 있다. 날라이흐교회 어린이들과는 성막과 예수님의 사역을 주제로 말씀과 체험 활동을 나누며, K-페스티벌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친근하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아카데미에서는 한국어 배우기와 만들기 활동, 게임, 찬양과 위심을 함께하며 현지 공동체와의 교제를 넓혀갈 계획이다.

두 팀은 현재 앞선 사역 계획에 따라 필요한 교안과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현지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도 함께 이어가는 중이다. 그 가운데 청년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하나의 팀으로 함께 나아가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또한 모든 팀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베트남

풍성히 누리고 그 기쁨을 현지 이웃들에게 전하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선교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청년들이 현지의 어린이와 청

소년,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희정 간사(청년부)



몽골



몽골



베트남

2026년도 2학기 광림장학생 제36기 선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의 인재들 후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의 인재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광림장학위원회(위원장 최동호 장로)가 '2026년 2학기 광림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원 대상은 광림교회 출석 가정의 대학생으로 1학년 1학기 이상 수료 및 지난 학기 성적의 평점이 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기당 15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7월 5일(주일) ~ 7월 26일(주일) 오후 1시까지 목회행정기획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klmc.church)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성적 우수 장학생 신청서, 자기신앙 소개서, 지난 학기 성적증명서, 목회자 추천서 등이 있다.

선발 방법은 성적, 자기 신앙 소개서, 교회 봉사, 가정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된다. 특히 자기 신앙 소개서의 점수가 선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정직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활동하는 부서가 있다면 봉사 부서 및 직책까지 포함해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1998년에 설립된 광림교회 장학위원회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28년 동안 매년 두차례(1,2학기)에 걸쳐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광림장학금은 개인명의 장학금과 기업 후원 장학금, 성도들의 장학헌금, 장학위원들의 헌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광림장학위원회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기 위해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1만원 장학 후원 헌금>을 홍보하고 있으며, <특별 기념 장학헌금>, <기업 장학헌금>

의 후원도 받고 있다.

<광림장학헌금>은 감사헌금 봉투의 팔호 안에 '장학'이라 기재한 후 헌금하면 전액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2026년 2학기 광림 장학생 선발>

접수 마감: 2026년 7월 26일(주일) 오후 1시

접수처: 목회행정기획실(02-2056-5716)

발표: 8월 12일(수) 광림교회 홈페이지

(klmc.church)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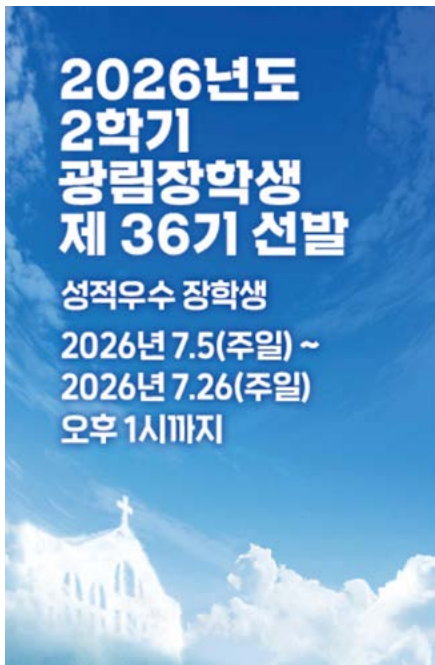
수여식: 9월 6일(주일) 오후 7시 30분

광림교회 대예배실

문의: 장학위원회 박상희 권사

(010-5351-2640)

백명순 기자



목회현장

기본에 충실한 광림남교회 1선교구



광림남교회 1선교구는 동백 지역을 중심으로 용인, 화성, 오산, 평택 북부를 아우르는 경기 남부 지역의 선교구입니다. 지역은 넓지만 한 가족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특별히 광림교회의 신앙에 뿌리를 이

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남1선교구 성도님들은 교회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 생활에 충실하십니다. 예배와 기도, 봉사과 전도에 앞장서는 분들이 많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자리마다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남1선교구의 가장 큰 자랑은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어르신들이 든든한 기초를 놓아주셨고, 젊은 세대는 그 믿음 위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지선경 야외예배로 친전 농다리를 다녀왔는데, 함께 웃고 교제하며 한마음 한 뜻으로 결속력을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남1선교구가 얼마나 따

뜻하고 건강한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1선교구 최고의 강점은 바로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배에 충실한 선교구입니다. 남1선교구 성도님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신앙의 중심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에 충실한 선교구입니다. 제38회 호렙산 기간 동안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지는 기도가 공동체를 세우고, 남1선교구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믿음을 계승하는 것에 충실한 선교구

입니다. 신앙은 개인을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남1선교구의 큰 축복은 어르신들의 믿음이 젊은 세대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삶으로 믿음을 보여 주시고, 다음 세대는 그 믿음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1선교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예배와 기도, 그리고 믿음의 계승이라는 신앙의 기본을 붙들기를 원하며, 적극적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남1선교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박영균 목사(광림남교회 1선교구)

광림남교회 캡스(KEBS) 여름영어성경학교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주제로 다채로운 활동



지난 7월 18일과 19일, 광림남교회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찬양 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캡스(KEBS) 여름 영어성경학교’가 크신 은혜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성경학교는 시작부터 끝까지 ‘날씨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곳은 날씨가 예보되어 염려했던 것과 달리, 아이들이 야외에서 마음껏 뛰놀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여름영어성경학교의 주제는 바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였습니다. 선교란 거창하게 먼 곳으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밭 딛고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채롭게 준비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 주제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흥겨운 율동과 함께하는 ‘영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고, 말씀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는 ‘성경 암송’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입술로 씩씩하게 고백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참여한 ‘공작’ 활동은 아이들의 창의력

과 협동심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여름의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린 신나는 ‘물놀이’는 교회학교 아이들 모두가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과 예배를 통해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성품을 닦는’ 것입니다. 셋째,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나는 광림교회 어린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은혜를 머금은 어린 눈망울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고 믿음의 키는 훌쩍 자랐습니다. 이제 교회 문을 나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길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빛나는 광림남교회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닦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으로 굳건히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휘원 전도사(광림남교회)

동탄광림교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마쳐



여름의 한복판, 동탄광림교회 아동부가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하나님을 만나요’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열고, 사흘의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첫째 날, 조별 활동 및 만들기를 통하여 ‘성막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진을 쳤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삶의 한가운데 모시는 법을 배우고(성막을 향해요), 재능과 마음을 기쁨으로 드린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법을 생각해 보았으며(성막을 지어요), 예배와 기도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배웠습니다(성막에서 드려요).

저녁에는 ‘교회학교와 함께하는 금요은혜의 밤’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두 손 모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막에서 배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경험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세계성막복음센터’를 찾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일하게 만들어

진 율타리와 성막, 번제단과 물두멍, 성소와 지성소 등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 물놀이 시간에는 더위도 아침의 진지함도 잠시 내려놓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물속에서 신나는 여름날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 주일, 어린이들은 성막이 가리키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광야의 성막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십자가의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진 것을 배우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위하여 본당 여선교회 총연합회의 후원과 더불어 광림남교회의 버스 지원, 동탄성전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아이들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자라기를, 동탄광림교회 교회학교가 더욱 뜨겁게 부흥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종혁 전도사(동탄광림교회)



수리아의 찬란한 수도, 안디옥(Antioch, Antakya). 이곳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저마다의 목적으로 세상적인 성공, 막대한 부, 혹은 안전한 삶을 꿈꾸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각자의 욕망으로 북적이던 이 도시의 풍경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그들은 복음과 구원의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과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를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안디옥 공동체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이자,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역동적인 은혜의 현장에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디옥 교회 내부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복음의 본질을 혼드는 주장 앞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대표단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1차 전도 여행의 생생한 은혜를 증거하며 본격적인 논쟁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 회의인 예루살렘 공회(The Council of Jerusalem, AD 48년경, 행 15:6~22)입니다. 변론과 치열한 신학적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행 15:11). 이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 역시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공회의 공식적인 결정문은 유다와 실라의 손에 들려, 바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졌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금 복음의 불길을 지피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굳건히 세웠습니다. 교회가 평안을 누리며 안정을 찾아갈 무렵, 바울의 마음속에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피어올랐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그곳을 다시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행 15:36). 하지만 여정의 동반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안타까운 갈등으로 보일 수 있는 이 갈림길은, 놀랍게도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거대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의 첫 목적지였던 구브로섬으로 향했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를 거쳐 북쪽 아시아와 유럽을 향한 더 넓은 선교의 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시작된 작은 발걸음은 이제 두 갈래의 더 강력한 복음의 물줄기로 세계를 향해 힘차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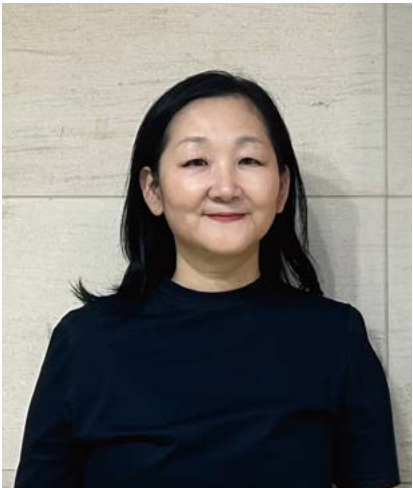
✚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안디옥 외곽 실피우스산 중턱에 있는 성 베드로 동굴 교회. 주후 50년경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 이곳에 머무르며 설교를 했던 곳으로 보임.

유치부, 학교라는 세상으로 나가기 전 믿음을 심는 곳

유치교육위원회 위원장 - 조수진 장로



2024년 장로로 피택된 조수진 장로는 현재 광림교회 유치교육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학교라는 첫 세상으로 나가기 전,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유치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꿈꾸며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유치교육위원장을 맡았을 때 어떠셨나요?
교회학교 사역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지만 부담보다 기쁨이 더 컸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 자리를 맡기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치부는 아이들이 학교라는 첫 세상으로 나가기 전 신앙의 기초를 가장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런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지만 지금도 배우는 과정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부장님과 총무님, 선생님들께서 함께 채워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를 섬기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생각보다 매우 짧다는 사실입니다. 1년 52주를 모두 출석해도 예배와 활동을 합쳐 약 52시간, 날짜로는 이틀 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가정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보여주는 삶과 신앙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가정예배와 어린이 속회 등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은?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교육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성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글이 아닌 경험으로 배우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경험을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국과 전도사님, 선생님

들이 함께 준비한 성막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복음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라고 고백하고,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말씀을 나누거나 동생에게 찬양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유치부를 위한 기도 제목은?
가장 먼저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만큼 가정 안에서도 믿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정직과 책임, 용서와 회복을 배우는 것입니다. 최근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이를 숨기기보다 인

정하고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만큼 어른들이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를 품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친구들을 초청해 10여 명의 새로운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친히 세워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믿음과 말씀이 예배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증명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한혜선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31



이스라엘의 첫 패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었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수 7:10~12)

여리고 성 함락 이후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투는 계속되었다. 이제 지중해 사이에 있는 모든 땅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서도 모든 일이 뜻대로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투에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과 동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을 멸하고, 그들의 재물도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지시하셨다. 하지만 금은보화에 눈이 먼 아간이 여리고의 값나가는 재물을 빼돌려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진하면서 여리고에서 벤엘 동쪽 벤아웬 근처에 있는 아이 성을 공격했다. 그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아이 사람들은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겁을 먹기는 했으나 항복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아이 성을 공격하던 이스라엘 군이 패배하여 많은 병사가 죽거나 쫓겨나야 했다. 이스라엘의 첫 패배로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었드려 저녁때까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호수아는 죄 있는 자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나머지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중용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죄를 밝히려 하지 않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비뽑기를 하여 범인을 색출하기로 했다. 제비는 아간을 도둑으로 지명했다. 그는 결국 훔친 물건을 숨겨둔 장소를 말해야만 했고, 그가 훔친 금과 은과 옷은 불에 태워졌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돌로 쳐 죽였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아골은 히브리어로 ‘근심’ 또는 ‘괴로움’이란 뜻이다. 하나님이 아간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구성된 한 명의 죄로 전체 구성원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서였다.

여호수아의 반격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도록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돌지니라 하시니”(수 8:1~2)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아이 성을 재공격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군대를 둘로 나누었다. 밤새 아이 성 외곽의 언덕에 3만 명의 군사들을 매복시켰고, 벤엘과 아이 성 사이에 5천 명의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이렇게 하여 아이 성의 북쪽에 본진을 치고, 서쪽에는 복병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5천 명의 군사와 함께 여호수아는 아이 성문을 향해 진군하였다. 아이 성의 왕은 여호수아가 적은 수의 군대로 공격해오는 것을 보고 얼마 전 자신들이 승리한 전투에서처럼 나머지 병사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크게 비웃으며 성문을 열고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였다. 이때 여호수아가 신호를 보내자 병사들은 후퇴를 시작했고, 아이 성의 왕은 성안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여호수아를 추격하였다.

여호수아는 병사들을 이끌고 산 쪽으로 후퇴했다. 그러자 아이 병사들이 있는 힘을 다해 여호수아의 군대를 쫓았다. 좁은 산골짜기에 다다른 여호수아는 계략대로 그곳에서 멈췄다. 그는 천 조각을 매단 창으로 서쪽 언덕에 매복해 있던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매복해 있던 병사들은 일제히 참호에서 뛰어나와 아이 병사들의 뒤쪽에서 공격했다.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된 아이 성의 왕과 군대의 운명은 이제 이스라엘의 손안에 있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전멸했다. 아이 성문은

◀ 아간의 죽음과 아골 골짜기_ 아간이 하나님의 제물을 빼돌린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이 성 전투에서 참패했다. 이후 아간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그가 훔친 모든 전리품을 불사르고, 아간과 그의 가족을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처형한 후 그곳에 돌무덤을 쌓게 된다. **윌리엄 블레이크 작품**

▲ 불타는 아이 성_하나님의 성스러운 언약궤를 앞세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 성을 함락하는 장면이다.

열려 있었기 때문에 성은 쉽게 함락되었다. 아이 성의 운명도 여리고 성과 같았다. 그들은 모두 살해되었고, 마을은 전소됐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의 모든 백성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치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오직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을 불 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렸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광림 뉴스레터

*재제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문의: 빛의 숲 서점(02-2056-5771)

